

“온실가스 감축” vs “호남권 메가시티” vs “해수부 인천 이전”

〈이재명〉

민주당 경선후보 정책행보

이재명, 기후환경·의료정책 발표
김경수, 전북·광주 찾아 스킨십 강화
김동연, 韓 센트럴파크 조성 공약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경선 후보들이 22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 출석하기 위해 따로 현장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전북 김제 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광주광역시를 찾아 민주당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25일엔 전남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로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환경 정책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 세계에 모범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탈(脫)플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스틱 로드맵 수립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료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두고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

〈김경수〉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전원합의체로 열린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광주를 찾아 당

〈김동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수도권 공통 공약 및 비정규직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원과 시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전 전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언급하며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이라며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호남, 충청, 영남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래서 출마했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호남권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5조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그런 지방 자치를 해서야 되겠나.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인천광역시로 이전해 인천을 해양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한 김동연 후보는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84개월)이 된 청년에게 6개월 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 일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임금(2024년 기준 204만8000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미지급 상당분,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 ‘노동력 희소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인적투자를 위한 국고보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청년 부동산” vs “의정갈등 해소” vs “5대 메가폴리스”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후보 공약 발표

김문수, 대학가 반값 월세존 등 제시
홍준표, 의협 방문해 “새정부서 논의”
한동훈, 첨단산업 발전·균형적 국토개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22일에도 후보들은 부동산·수도권 공약 등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강화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오피스텔 중과대상 제외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김문수 캠프는 주요 대학가 주변 원룸은 높은 월세를 받지만, 대학 기숙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일례로 수도권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청년층의 비(非) 아파트 거주비율이 64.8%로 높지만, 2023년 공공 오피스텔 착공 물량이 1만7900호에 불과한 점에 착안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며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은 세세상 중과

〈홍준표〉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청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 공약인 ‘세대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도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생활분리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해서 ‘무리하다. 그래서 안 된다. 의사로 가버리면 이공계 인재를 모을 수 있겠나. 100~200명 올리다가 협의해

서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했는데, 대구시장에 있으니 중앙정부에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너진 첫번째 단추가 의료계와의 충돌”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지난 2년간 해결하려고 여당도 야당도 나서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고집부려서 방치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홍 후보는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바로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전국에 5개의 서울급 메가폴리스를 만들어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발표문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

〈한동훈〉



한동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대 메가폴리스 조성’ 등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겠다고 한다”며 “이미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기 바쁜 이 후보가 또 다시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는 건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에 대해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에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세로펀드 제도로 첨단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으로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한덕수 “2+2 협의로 한미동맹 굳건해질 것”

내일美서 최상목·안덕근 협의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예정된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에 대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 통상 장관 간의 개별 협의도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협의와 관련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 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예진 기자 syj@